

마곡사 '신록축제 템플스테이'

'춘마곡(春麻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봄 경치를 자랑하는 마곡사. 마곡사가 봄과 함께 하는 '신록축제 템플스테이'를 5월 7-8일 이틀간 마곡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천년의 땅 푸르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신록축제는 산티 크로마 하프연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북·장고춤·밸리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축제 개막을 일린다. 이어 저녁 7시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신록음악회가 열린다. 새벽 3시30분 예불과 108배로 시작되는 둘째 날에는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새벽술길 경기명상에 이어 울력, 노래자랑, 사물놀이, 보현 스님 공연 에어로빅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041)84-6226

한영우 기자

청주시, 국회서 직지홍보전

청주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 원화관에서 직지홍보전을 갖는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홍보전에서는 금속활자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고, 직지홍보영상물도 상영된다. 또 당시의 금속활자를 재현해낸 활자를 직접 한지에 인쇄하는 활판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박익순 기자

청주불교방송, 개국 8주년

청주불교방송은 4월 26일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청주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이원종 총목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부처님 법을 호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소리에 모양과 형상이 없으며 소리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니 소리의 결과는 그만큼 엄청나다"며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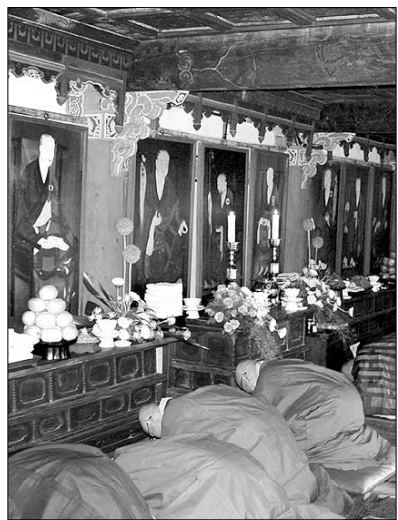
장애인 초청 남도 나들이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천운) 관내 장애인 50여명이 광주 운봉리의 도움으로 4월 27일 바깥나들이를 했다.

지체 3급 이상 장애인들을 초청한 이날 나들이에는 운봉리 회원들의 개인택시 25대가 동원돼 목포자연사박물관과 영산포 유채꽃밭 등 남도일대에서 봄날을 만끽했다. 우산종합복지관과 7년째 봄, 가을 장애인 나들이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유영식 운봉리 회장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운봉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개산·종제 뿌리 이어가는 행사 다채



지난해 열린 보조국사 종제에서 다례를 올리는 모습.

순천 송광사주지 영좌와 보성 대원사주지 지막이 개산 및 종제 등 뿌리를 이어가는 전통법회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미한 행사를 펼친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탄신 795주년을 맞아

송광사-전계식, 탕화전시회

대원사-티베트·인도문화축제

오는 5월 4-5일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삼월불사는 목우가종을 개산한 보조국사 종제와 함께 전계대화상 범일 보성대종사 전등율맥 전수법회가 함께 봉행된다.

송광사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계식에는 지현(知玄) 수진(守眞) 지현(志賢) 진옥(眞玉) 철오(徹悟) 지관(智觀) 지광(智光) 원통(圓通) 정오(正悟) 원순(圓璿) 덕조(德祖) 대경(大鏡) 현진(玄珍) 혜수(慧首) 스님이 율맥을 전수받는다.

또한 송광사는 보살계 수계산림에 앞서 4일 저녁 대웅전에서 증명법사 릴레이법문과 명상음악 공연 등을 철야로 진행한다.

다음날 봉행되는 종제는 전통적으로 수계산림에 이어 화엄법계도에 따라 정진한 후 국사전에서 16국사 다례를 올린다.

송광사 박물관도 종제를 기념해 제9회 김영을 탕화 특별전을 7월 말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김영을씨의 탕화, 판화 등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송광사 말사 대원사도 개산 1503년을 맞아 '티베트·인도 문화축제'를 5월 5-6일 개최한다. 전통산신제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축제는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티베트 나왕계족과 인도 최고의 반수리 연주자 밀린드 다테, 인도 음악가 박양희씨가 출연해 티베트·도명상 음악 공연과 캠프를 펼친다.

특히 산신제와 합동 천도제에는 티베트의 집장 린포체와 6명의 티베트 라미시가 초대되어 라미댄싱과 전통 푸자 의식으로 펼쳐진다. 현장 스님은 "대원사가 생일을 맞아 가족과 친구, 조상이 상생 화합하는 대동한마당을 마련했다"며 "한 맺힌 영혼들을 위한 진혼과 상생의 삶들이 마당굿에 한국은 물론 티베트·인도의 문화가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준엽 기자

"남기신 법문 받들어 정진할 것"

전강선사 사리탑 제막식서 송담 스님 법문



전강 스님 입적 30주기를 맞아 전강 스님 사리탑이 수원 용주사에 모셔졌다.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전강 스님(1898-1975)

의 사리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전강영신대종사 문도회(회장 정무)는 전강 스님 입적 30주기를 기념해 4월 25일 수원 용주사에서 인연 융화선원장 송담, 석남사 회주 정무, 수덕사 수좌 설정, 불암사 회주 일면,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 등을 비롯한 전국 선원 수좌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강선사 사리탑 제막 및 집안식'을 열었다.

송담 스님은 "전강 스님은 평소 법문에 서 열반 전에 사리를 수습하거나 사리탑

을 세우지 말라는 언지가 있었지만 그 뜻을 어기고 이렇게 사리탑을 조성하게 된 것은 스님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받들라는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며 "지금 스님의 육신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스님이 남긴 법문을 법신사리로 삼아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사부대중은 스님의 법문을 통해 신심과 분심을 일으켜 몸과 마음에 해탈을 얻고 자각각타(自覺覺他)의 삶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용주사 중앙선원 앞에 조성된 전강 선사의 사리탑은 지난해 3월부터 전강영신대종사문도회가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국보 제1101호인 법전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모형으로 했다.

수원 용주사=김철우 기자

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상량식

단양 광덕사주지 성원은 세계일화도량 건립을 위한 '백만불전 상량과 신임주지 산식'을 4월 24일 봉행했다(사진).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수덕사 설정 스님, 은해사 주지 법다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백만불전은 한국의 전통불교와 세계 모든 민족, 국가를 초월한 세계일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백만불전 건립의 뜻을 되새겼다. 이에 앞서



광덕사 회주 해인 스님은 "사부대중의 동참 속에 대작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새 주지 성원 스님이 어려운 불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조용수 기자

생명나눔 어린이들이 앞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창)와 광주 연화 유치원(원장 명신)은 지난 4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2005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펼쳤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연화유치원 원생 60여명이 참가해 학생회관과 교내를 돌며 '희망나눔 돼지저금통 나눠주기' '소아암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종이화 만들기' '헌혈증서 모으기' 등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서울 정릉 삼원사

공부·신행으로 움직이는 포교



삼원사 불교교양대학에서 신도들이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고 있다.

북한산 골짜리인 서울 성북구 정릉 4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삼원사는 1988년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이던 암도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사찰의 역사만 놓고 보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이나 다름없다. 사찰 규모 역시 보통 사찰들과 비교하면 초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삼원사 주지 선각 스님과 신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있다.

이들이 경전반을 졸업하는 것은 오는 6월. 하지만 교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다시 삼원사 봉사단인 '보덕회'에 편입된다. 그리고 사찰이나 신도들의 애경사에 동참해 봉사활동을 한다.

기도모임이자 사찰 열불봉사단인 '목련회'도 신행과 봉사를 병행하면서 지역과 연계한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삼원사는 이 두 신행단체를 통해 호스피스 활동과 무료급식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원사

무료차집 '선다원' 개원... 휴식공간 제공

보덕회·목련회 통한 지역사회 봉사 계획

삼원사가 가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은 주지 선각 스님이 삼원사 주지로 부임한 3년 전부터다. 신도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차집 '선다원'을 개원하고, 공원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찰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인근 약속터로 가는 길을 내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했다. 신도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작년부터는 불교교양대학을 열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개월의 기초반 과정을 마친 신도 40여명은 지금 경전반에서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신도들은 그야말로 공부와 신행을 아우르는 불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삼원사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불사는 바로 대웅전 건립이다. 19평 규모에 불과한 현재의 법당으로서는 신도들이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스님과 신도들은 대웅전 건립을 발원하고 3년 전 천일기도에 입재해 오는 8월 회향한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2천일기도에 들어간다.

"지금은 신도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포교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02)912-6855

한영우 기자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매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스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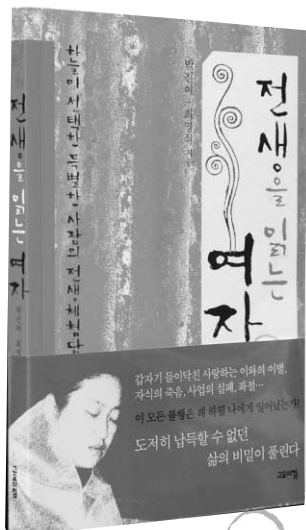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피동명상연구소 02)996-6156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 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수신통오가피

禮獻(예헌)이란? 영령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모종오가피 재배지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개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오가피에서도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개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외대오가피재배지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통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메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 선상배양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통오가피와 허동의 관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매가 사범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정디안을 드립니다.